

지역 소식통

가축 질병 중점 방역 관리

정읍시가 6~9월 여름철 폭염·장마 등으로 인한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중점 방역 관리'에 나섰다.

시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하절기 높고 습한 기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사료 건조 상태 유지 ▲모기 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한 물 웅덩이를 제거하고 살충제로 모기를 방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 벽·지붕에 단열재를 설치 ▲환풍기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가축 탈수 예방을 위한 물 수시 공급 ▲축사와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장마철 방역 관리 수칙으로 ▲주 2회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소독 ▲축사 침수 시 신속한 배수 후 소독 실시 ▲건축물 배합시료가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 ▲사료급여용 및 급수조의 청결 상태를 유지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 관리 등을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벤처기업 2곳 협약

부안군은 24일 부안군청에서 (주)파셀 및 (주)에프씨엠테크놀로지 등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벤처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군은 사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협약기업들은 연료전지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제조업 공장 설립 등의 후속투자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파셀은 세계 최초 대량 생산 기술을 적용한 54kW급 복합체 분리판 적용 스택을 개발한 벤처기업으로 부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주)에프씨엠테크놀로지는 수소 연료전지를 막전극 집합체(MEA)를 연구 및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부안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마한고분 사적 확대지정 추진

## 고창군 학술심포지엄... 2기의 분구묘·칠암리 고분 등 유적가치 조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고학적 의견 모아

고창군이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확대)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24일 오후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고창 봉덕리고분군의 가치를 더욱 드러내고 사적 확대지정의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장기적으로 고창 마한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역사 고고학

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유적'을 비롯해 많은 수의 마한 분구묘와 집자리 등이 산재해 있는 한반도 고대문화의 중심지다.

그 중에서도 총 4기로 이뤄진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2009년 1호분 발굴조사에서 돌방무덤을 비롯해 옹관과 석곽 등이 확인됐다. 특히 금동신발과 중국제청자, 금귀걸이 등 수준 높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2009년 1호분 발굴조사에서 돌방무덤을 비롯해 옹관과 석곽 등이 확인됐다.

유물이 출토돼 5세기 무렵 고창마한의 모로비티국의 위상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조사성과와 유적의 가치가 인정돼 2015년 1호분과 2호분이 사적 제531호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바로 인접해 있는 나머지 2기의 분구묘(3, 4호분)를 포함해 칠암리 고분 등 마한고분에 대한 사적 추가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술심포지엄은 최원규(원광대) 교수의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마한문화의 의미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문형 박사의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고고학적 위상과 가치, 성운길 국립마한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이영철 (재단한문화재연구원)의 '고창 칠암리 고분의 성격과 가치',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의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사적확대 지정방안', 이영덕 (제)호남문화재연구원장의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정비 활용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계기로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사적 확대지정 추진과 함께 또 다른 고창 마한고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구룡동 구룡1길 188-29)에 조성된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이하 정읍허브원)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꽃이 만개했다.

## 정읍 허브원, 보랏빛 라벤더꽃 '활짝'

### 33만㎡ 규모 라벤더 등 34만주

정읍시 구룡동에 보랏빛 라벤더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룡동(구룡1길 188-29)에 조성된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이하 정읍허브원)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꽃이 만개했다.

보랏빛 꽃이 만개하자 보기 드문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온 많은 이들이 라벤더 향기 속에서 인생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정읍허브원은 총 33만㎡ 규모에 라벤더 30만 주와 라벤더 4만 주를 심어 가꿔가고 있다.

이중 라벤더(6월 개화)와 라벤더(7월 개화)의 식재 면적 부지는 7만3,000여㎡로 약 30%를 차지한다.

아곳에는 지난해 5월부터 식재한 34만여 주의 꽃들이 만개해 사방에 온통

보랏빛 장관을 이루고 있다.

정읍허브원은 이곳이 단순히 꽃만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읍의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허브원과 시는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정읍의 스토리와 특성을 담은 관광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 정읍허브원은 모든 오일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라벤더오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브 추출물을 이용해 미스트나 목욕용품, 천연 화장품, 탈모샴푸 등을 생산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읍허브원에는 7만3,000여㎡ 규모 라벤더꽃이 보랏빛 장관을 이루고 있다"면서 "정읍허브원을 찾은 시민들이 라벤더꽃을 만끽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선별진료소, 냉·난방 겸비한 '음압 컨테이너'로 교체

고창군이 기존 보건소에 설치된 음압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사계절 겸사가능한 냉·난방이 겸비한 음압컨테이너로 새롭게 변경 설치해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보건소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는 가로 3m, 길이

10m, 높이 3m 규모로 역학조사실과 진료실, 검사채취실 2개, 의료진 탈의실, X-ray실로 구성돼 있다.

환자 진료공간에 음압시스템, 냉난방기, 컴퓨터, 검체보관 냉장고, 해파필터를 장착한 공기 정화기가 설치됐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한 음향시스템 등이 완비되어 있어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환기와 소독시간이 기존 텐트형에 비해 20분 이상 짧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군민은 물론 의료진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최고 1억 5000만원 한도 보상

부안군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보험사 한국자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이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연령, 성별, 직업,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

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행사·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의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비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15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모범사례 호평

### KTV 국민방송 우수사례로 소개

정읍시가 외국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우수운영 지자체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방송된 KTV 국민방송 '우리 동네 개선문'에서 글로벌 통역관을 비롯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자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정책 방송기관인 KTV 국민방송의 '우리 동네 개선문'은 국민 생활속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지자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유진섭 시장의 인터뷰와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소개됐다. 방송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고층 민원의 적극 행

정 사례와 시의 민원서비스 추진 상황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거주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20년 현재 2,83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민원서식 해석본과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또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외국인 통역관으로 지정하고 민원실을 찾은 외국인의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